

&gt;&gt;&gt;강 단&lt;&lt;&lt;



## 신혼신(神魂身)의 성결

〈살전 5:23-24〉

이 명 직

〈서울신학 명예학장〉

대저 우리사람은 세가지 부분으로 완전한 사람이라는 것이 조성되었으니, 즉 신(神), 혼(魂), 신(身)이다. 이 세가지 중에 하나라도 빠지면 사람이라 할 수 없다. 身은 있으되 神과 魂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니라 시체요, 神과 魂은 있으되 육체가 없으면 그것은 천사와 비슷한 것이지 사람은 아니며, 魂은 있으되 神과 身이 없으면 그것은 유명이지 사람은 아니다. 그러면 사람은 천사도 아니요, 유명도 아니요, 그렇다고 시체도 아니요, 하등동물도 아니요, 영계와 정신계와 물질계를 통하여 활동하며, 지배하며 충색(充塞)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실케 하시되 어느정도까지 하시는가 하던 신혼신(神魂身)의 전부를 완전히 성결케 하시니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대하신 소원(素願)이다. 가령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녀를 가진 사람이면 그 자녀에게 대한 소원이 한사람이라도 불구자나 불완전한 자녀가 없이 지식으로나 의도로나 모든 것이 완전한 사람이 되기를 바란 것은 사실이다. 그러면 자비하신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가 불완전한 중에 있기를 원하신다 하면 이것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말이라 할 수 없다. 혹 어떤 사람은 완전히 성결이라 하면 늘

라는 일이 많으니 실로 이상한 일이라 아니할 수 없다. 간단하게 말해서 성결이라 하던 죄와 분리되어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을 가르키고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마귀의 사납되는 죄에서 완전히 떠난다는 것이 증명한 사람이면 누구든지 그렇게 놀라지 아니할 줄로 생각한다. <하나님께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약 13:9)하였다. 하나님의 자녀된 자가 죄에서 완전히 떠나 성결하여지며 성결한 생애를 보낸다 함은 참으로 합당한 얘기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여기 신(神)이라하는 말은 즉 영(靈)을 가르키이니 영이라 함은 태초에 하나님의 형상대로 조성하였으니 그러므로 처음 사람 아담을 가르켜 생령(生靈)이라 (창 2:7)하였다. 왜 생령이라 하였나면 영이 육신에 있되 죄와 아무 상관없이 자유로 영계의 하나님과 교제를 한 까닭이다. 인류가 타락이 된 후에는 생령이라 하던 사람을 가르켜 (사람이 다 육체가 되었으니)(창 6:3) 육체라 함은 곧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지고 육체만 위하여 생활하게 된 타락성을 말함이다.

영이 성결한 자는

① 하나님을 믿나니 즉 진실하신 각로의심없이 믿되, 아브라함, 노아, 예녹등

의 성인과 같이 믿게 된다, 사람의 불신앙은 그 영이 깨끗하지 못한데서 일어나는 역사이다.

② 하나님을 알게 되나니 그 아는 것은 보통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깊이 아는 것이니 즉 우리가 미국에 있는 사람을 아는 사람이 많은데 그 아는 것은 전하는 말을 들었다든지 혹은 그의 저술한 서적을 보고 아는 것이니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와 같이 아는 것이 아니라 천리 보고 악수하고 접어(接語)하고 교제하고 나서야 그 변모와 체격과 성질을 알 수 있는 것과 같은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데 두가지가 있으니 하나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니 이와같이 아는 것은 경건이 없고, 둘째는 영험적으로 아는 것이니 이렇게 아는 것은 참된 경건과 생명의 활동이 있다. 누구든지 죄를 절실히 깨달고 미래의 운명을 두려워 하는 마음으로 회개하여 영이 거듭난 사람으로 하나님이 희미(稀微)한 사람은 없을 것이다.

③ 하나님을 사랑하나니 영이 성결치 아니한 사람은 오직 먹는것, 입는것 금전 명예, 재물을 사랑하나니 곧 육에 속한것 세상에 속한 것만 사랑하되 영이 성결한 사람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폴더감이 화형을 당하면서 80년간이나 나를 알지 못한다고 하지 않으신 주를 내가 알지 못한다고 하지 못하겠다 하면서 태연히 죽은 것은 과연 영이 성결한 자가 하나님을 사랑한 증거이다.

④ 하나님을 기뻐하나니 어린아이가 그 부모를 기뻐하는 것과 같이 거듭난 사람 즉 영이 성결한 사람은 하나님으로 기쁨이 된다.

⑤ 하나님께 기도한다. 영이 성결한 사람이라야 기도를 하나니 영이 성결치 못하면 하나님을 알 수 없고 사랑할 수 없고 믿을 수 없으니 자연 기도의 능이 있을 수가 없다.

그 다음에는 혼(魂)을 성결케 함이니 혼이라 함은 마음이라 할 수도 있고 정신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영과 신(身)의 중간에서 활동하나니 위로는 영과 연(聯)하고 아래로는 신(神)과 결(結)하여 능히 인간 만사를 지배하는 것이다. 정신 즉 혼의 작용은 심리 전체를 포함한 것이니 고급 과학이 다 혼의 작용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것이다. 공자는 공자의 혼을 석가는 석가의 혼을, 철학자는 철학의 혼을, 과학자는 과학자의 혼을 이 세상 안에 끼쳐 두었음으로 후세에 그 정신 즉 혼을 이어서 일어나는자 그의 제자가 되기도 하며 그의 사업이 확장되기도 하나니 이는 그 사람은 죽었으나 그 혼은 죽지 아니한 증거이다. 이제 그 혼이 성결한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살펴보자. ①야심이 없는 자, 즉 혼이 성결한 사람이다. 세상에 야심이 없는 곳은 없으니 정치 사회에는 정치적인 야심이 있고 도덕자에게는 도덕적인 야심이 있으며 학자에게는 학자의 야심이 있고 자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자선을 기회 삼는 야심도 있고 종교자에게는 종교의 야심이 있는 팀이다. 이 세상에 어찌하여 다툼과 전쟁과 파괴가 일어나는가 하면 야심으로부터 일어나는 것이다. 어떤 교역자가 혼자서 일할 때에는 열심으로 하였지만 두사람이 함께 일하게 될 때에는 열심을 내지 않는 대신 동역자의 비평이나 하고 서로간에 반목하는 일이 있다하면 그 정신이 어디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하던, 혼자 일 할때에 성공하면 그 명예의 칭찬이 자기 혼자만의 것이 되겠고므로 그 명예라는 야심이 열심히 함이요, 두사람이 함께 동역할 경우에 성실치 아니하는 것은 비록 자기가 힘을 다할지라도 명예와 칭찬을 타인과 나누게 되므로 타인의 명예를 시기하는 야심에서 생긴 것이 분명하다. 사울이 어찌하여 다윗을 죽이고저 하였나면 인민이 노래하기를 사울은 천천을 죽이고 다윗은 만만을 죽였다 하여 그 명예가 다윗에게만 돌아가는 것을 원치 아니하는 야심으로 말미암아 일어났는데 그 야심의 결과가 자기의 일신만 그릇친 것이 아니라 국가대사를 그릇친 것이 되었던 것이다. 정말 두려운 것은 야심이다. 자타를 다 멸망으로 몰아넣는다. 명리(名利)를 낚시질하는 사람은 무슨 일이든지 성공할 수 없다. 하나님께서 이 불결한 야심을 성결케 해주신다

㉔ 사상이 온건하나니 정신이 불결한 사람의 그 정신을 진찰한다 하면 불건강이라는 진단의 선고를 받을 것이다. 불건강한 자는 저항력이 부족한 고로 자립하지 못하고 항상 풍조(風潮)에 요동이 되어 귀에 들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사상에 변동을 가져오나니 가령 말하자면 사회주의이니, 연애주의니, 또는 공산주의이니 하고 떠들어대는 통에도 흔들리지 아니할 사람이 없겠으나 정신이 성결한 사람은 확고부동의 기개가 있어 시비선악을 벌써 판단하여 결코 사소한 주장과 길지못한 사상적주의라는 풍조에 요동되지 아니한다.

㉕ 참된 안심이 있다. 정신이 성결한 사람은 경우와 환경을 막론하고 진정한 안심이 있으니 실혹 사경(死境)을 당한다 할지라도 천명을 아는 동시에 단심한다.

또한, 물욕과 접할시에 요동치 않는 것이 단심이다. 소년 요셉은 색의 유혹을 받았으되 더럽지 아니함은 그 정신이 성결한 때문이다. 어떤 자매의 간증을 들은즉, 「정신상의 성결을 받지 못한 때에는 종로 같은 큰 길을 지나다가 즐비한 좌우 상점에 진열한 온갖 화장품을 보고 마음에 파도가 일어나며 고통을 느끼게 되는 것은 마음에는 하고 싶되 금전이 없음이다. 그리하여 이와같은 허영과 물욕에 유혹을 받은 후에는 낙심이 되고 염세증이 생겨 죽고 싶기 까지 하였으나 성결의 은혜를 받은 후에는 자기의 분수를 지킴뿐이요, 그러한 것을 볼 때라도 결코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냉정하다」는 말을 들었으니 듣는 그 정신이 성결함을 받은 까닭이다.

다음에는, 신(身)의 성결이니 신이라 함은 물질인데 즉 혼의 지배를 받는 기계라 할 수 있다. 혹은 身은 무익하나 사람의 영과 혼의 대결(大切)한 것과같이 신(身)도 동일하게 대결한 것이다. 당초 육체가 없었던 사람이라는 명사를 가리지 못하였을 것이다

만일 육체가 성결치 못하면 영과 혼이 성결하였다는 것은 일종의 의문이니 영과 혼이 성결하던 육체가 깨끗하다는 자연의 결과라 할 것이다. 어떤 사람은 술은 성경에 취하지 말라 하였고 마시지 말라는 말씀은 없으니 조금씩 마시도 관계가 없으며 담배도 성경에는 아무 교훈이 없으니 이 역시 상관의 없다하나니 이는 심히 개탄할 일인 줄로 안다. 오늘날도 성경에 기록되지 아니한 죄악이 어찌 한두가지 뿐이겠는가. 성경에 없다고 하며 이와같은 죄를 범하여도 상관의 없단 말인가? 영이 기록한 사람은 물론 악한 일을 도망이

라도 버리는 것이 합당하며(살전 5:19) 멀리하는 것이 옳다. ① 의복과 기타 장식도 거룩할지니 즉 성경말씀을 쫓아 <아담한 의복을 입으며……꾸민 머리카나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단장하지 말고>(딤후전 2:9) 단순한 것으로 하는 것이 주의 뜻이며 이것이 심령이 거룩한 자의 사실이다. 오늘날 교회내에서도 의복이나 기타 장식에 까지 세상의 시체(時體)를 모방하는 일이 너무 많으니 이는 세상을 위하여 사는 사람의 일이지 결코 주를 위하여 사는 사람이라고는 할 수 없다. ② 육체로 행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깨끗할지니, 주의 이름을 더럽히지 말아야겠다. 바둑, 장기, 화투등과 극장은 죄인의 공회석이요 죄악의 대개이니 거룩함을 입은 육체로는 그러한 것과 처소에 출입함이 일종의 죄악이라 아니할 수 없다. ③ 그 사업도 경결하여지나니, 가령 전에 술장수하던 사람이 덜은 후에도 여전히 할 수 있겠는가? 또 일종의 도박성을 가진 미두취인(米豆取引)이니 주권환매(株券換買)니 하는 불

의 행위등 이러한 것들은 다 불의한 일들이다. 잘라 말하자면 절도나 강도의 행위이다.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의 심리로 말하면 분명히 죄악의 이익을 탐하는 성결에서 나온 것을 증명할 수 있다. 그러나 주께서 이와같은 육신의 사업과 행위까지 거룩하게 하시고저 하신다.

심령이 성결한 자는 육신으로도 <악한 자의 의논대로 행치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도 아니하며 오만한자의 자리에 앉지도 아니하느니라>(시 1:1)그 입으로는 능담이나 욕설이나 음담이나 취한 말을 하지 않는다.

이와같은 완전한 성결을 원하시는 자는 누구시며 완전케 하시는 자는 누구신가? 즉 신실하신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자녀되신 자이거든 과연 자기의 영과 신(身)이 완전히 성결한지 돌아보아 부족한 곳이 있거든 정직하게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와서 그 보혈로 씻기심을 받고 재림의 주를 두려움 없이 기다려야겠다. 지금은 말세이다.

### 궁평 교회당 헌당식 및 임성훈목사 위임식 거행

1968년 12월 27일 궁평교회당 헌당식이 당회장 임성훈목사의 사식으로 성대히 거행되었다. 이 식에 이어 총서지방회장 신효식목사 사식으로 임성훈목사 위임식이 거행되었다. 이날 설교는 교단총무 이우호목사가 맡았고 교계 및 지방의 유지와 인사들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궁평교회는 1966년 3월 임성훈목사 부임후 대지 450평에 71평 2층 건물(연 153평)을 착공하여 공사비 2백 2십만원울 드려 1968년 12월에 준공했다. 임목사는 아래와 같은 인사를 전해왔다.

#### 인사말씀

신년을 맞아 전국 교회 위에 하나님의 축복이 더욱 더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구랍 27일에 있었던 저희 궁평교회 헌당식과 교말의 목사 위임식에는 공사 다망하심에도 많이 왕림해 주시고, 또 축전, 축품을 보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오며, 전 교회를 대표하여 이 지면을 통하여 인사말씀 드리나이다.

아울러 본 교회당 건축시에는 물심으로 도와주신 분들과 교회에 감사드립니다.

1969. 1.

궁평교회 당회장·임 성 훈 배